

## 《說文解字》 正篆과 引用文 讀若字의 관계 探析\*

李 春 永\*\*

##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說文解字》 引用文 表音자료 |
| II. 《說文解字》 ‘讀若’과 引用文에<br>대한 고찰 | IV. 結論               |

## I. 들어가는 말

《說文解字》는 東漢 經學家이자 文字學 大家인 許慎이 저술한 字典이다. 許慎은 서기 54년 東漢 汝南郡 萬歲里(現 河南城 鄆城縣 동쪽 許庄村)에서 태어났다. 30세 즈음, 수도에 가서 관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sup>1)</sup> 《後漢書·儒林傳》의 “少博學經籍(어려서 경적을 널리 배우고)·“五經無雙, 許叔重(오경에 있어는 허숙중과 견줄만한 사람이 없었다)”의 기록과 그의 저서 《五經異義》를 근거할 때, 許慎은 당시 經學家로서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許慎은 古文經과 今文經을 모두 통달한 賈逵의 제자이다. 古文經과 今文經의 문자학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 저술한 《說文解字》의 수록 漢字는 小篆體를 대표 漢字로 삼아, 本義와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漢字의

\* 이 연구는 2020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1) 頓嵩元, 〈許慎生平事迹考辨(1)〉, 《漯河職業技術學院學報》(綜合版) 第2卷 第3期, 2003.

讀音が 표기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表音술어는 ‘讀若’·‘讀與’·‘讀如’이다. 《說文解字》의 ‘讀若’과 ‘讀與’는 매우 다양한 확장형식으로 나타난다. ‘讀若某’·‘讀與某’·‘讀如某’·‘讀若與某’·‘讀又若某’·‘讀亦若某’·‘讀與某同’·‘讀若某同’·‘又讀若某’·‘或讀若某’·‘讀之若某’ 등이다. 그 중 일부 ‘讀若’·‘讀與’·‘讀又若’의 술어 뒤에 經典句가 인용되고, 句에 사용된 漢字를 讀若字로 삼은 자료가 나타난다. 漢字는 의미에 따라 다양한 한자음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許慎의 引用句 제시는 漢字의 의미를 제한하여 명확한 讀音を 표기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漢字 讀音 연구의 명확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인용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說文解字》에서 經典을 인용하여 표음한 讀若字 자료를 분석하여, 許慎의 《說文解字》 表音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許慎의 表音규칙을 파악하고 東漢시대 漢字 발음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經典 연구 및 文字學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II. 《說文解字》 ‘讀若’과 引用文에 대한 고찰

《說文解字》의 ‘讀若’자료에서 正篆과 讀若字의 同音관계뿐만 아니라 音近의 상황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讀若’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견해와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段玉裁는 ‘讀若’을 발음을 표기하는 술어라고 했고<sup>2)</sup>, 嚴章福은 假借를 표기하는 술어로 보았으며<sup>3)</sup>, 王筠은 어음표기와 가차 표기를 겸하는 술어라고 판단하였다<sup>4)</sup>. 그러나 《說文解字》 ‘讀

2) 《說文解字注》, “凡言讀若字, 皆擬其音也.”

3) 《說文校議》, “許書言讀若某、讀與某同、或言讀若某某之某, 皆謂假借, 無關音切.”

4) 《說文釋例》, “有第明其音者, 有兼明假借者, 不可一概論也.”

楊劍橋, 《〈說文解字〉的‘讀若’》, 《辭書研究》, 1983, 87-92쪽.

若'의 기본적인 기능은 한자의 발음을 표시함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說文解字》의 '讀若'을 한자의 발음표기의 술어로 전제하며, 讀若의 내용을 東漢시대 許慎이 구사하던 讀書音으로 간주한다.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讀若+漢字'의 형식과 더불어 '讀若+經典句'의 형식으로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許慎이 表音에 經典句를 인용하는 방법은 讀若字의 의미를 제한하여 표기 발음을 명확하게 한다. 즉 正篆의 발음이 다양하게 나타날 때, 인용문을 참고하여 해당 발음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許慎은 《說文解字》의 완성 전에 《五經異義》를 완성하였다. 許慎이 南閣祭酒를 맡고 있을 때 博士들 및 학생들과 五經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했고, 각 經을 교정하기 위해 《五經異義》를 저술하였다.<sup>5)</sup> 당시 經學家로서 許慎의 지식은 매우 영향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經學家 許慎은 《說文解字》에서 많은 儒家의 문헌들이 인용하고 있다. 청나라 段玉裁는 “許君博采通人, 載孔子說、楚莊王說、韓非說、司馬相如說、淮南王說、董仲舒說、劉歆說、楊雄說、爰禮說、尹彤說……”<sup>6)</sup>라고 하였고, 王念孫은 序文에서 《說文解字》를 “以文字而兼聲音訓詁者也.(문자로서 성음과 훈고를 겸한다)”<sup>7)</sup>고 평하였다. 그러므로 經學家 許慎이 인용한 經書의 引用句는 文字學(文字·聲韻·訓詁)적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시킨다는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이다.

### Ⅲ. 《說文解字》 引用文 表音자료 분석

본고의 正篆과 讀若字의 어음은 引用句의 의미와 두 漢字가 나타내는

- 5) 蔣澤楓·王英, 〈許慎《五經異義》의 經學貢獻〉, 《通化師範學院學報》 第29卷 第7期, 2008, 20쪽.
- 6) 許慎 撰, 段玉裁 注, 《新添古音說文解字注》,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9, 771쪽.
- 7) 같은 책, 1쪽.

공통된 발음이나 유사음을 근거로 파악한다. 漢字의 발음은 현존 운서 중 古音과 方言을 근거로 가장 세밀한 구분을 하고 있는 《廣韻》과 《集韻》<sup>8)</sup>을 근거로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許慎의 東漢시기 발음으로 擬音하여 許慎의 표음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正篆과 讀若字의 語音적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聲符의 어원관계, 異體字와 假借字 등을 근거로 심도 있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1. 《詩》 引用 20句

《詩》 風·雅·頌의 20개 句를 인용하여 表音하고 있다. 아래와 같다.

#### (1) 玼(珉) 奉

《說文解字》 1篇上 玉部 ‘珉’에 대해서 許慎은 “石之次玉者, 以爲系璧. 从玉丰聲. 讀若《詩》曰瓜瓞拳拳.”이라고 하였다. 인용문 《詩·大雅·生民》 “瓜瓞拳拳”의 ‘拳’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艸盛’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許慎이 해석한 “瓜瓞拳拳”구문의 의미는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다’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正篆 玼은 《集韻》 董韻 補孔切이며, 上聲 開口1等 並母字이다. 王力 의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sup>9)</sup>, 玼은 漢나라 boŋ 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艸盛兒(풀이 무성한 모양)”을 나타내는 讀若字 拳은 《廣韻》 董韻 補

8) 隋代 《切韻》의 편찬원칙은 “論南北是非, 古今通塞”이다. 즉, 古今의 어음과 방언의 어음을 아울러서 聲韻을 가장 섬세하게 분류하고 있는 운서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切韻》을 기초하여 증수한 《廣韻》에 근거하여 聲韻을 분석하고, 《廣韻》의 부족함은 《廣韻》을 기초하여 수정한 《集韻》을 참고하고자 한다.

9) 王力, 《漢語語音史·歷代語音發展總表》,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490-525 쪽 참고. 이하 漢代 漢字의 擬音은 모두 역대 어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王力 책을 참고한다.

蠓切이며, 上聲 開口1等 並母字이다. 漢代 발음은 boŋ으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이 正篆 珙에 대해서 “艸盛兒”의 의미를 지니는 奉으로 표음하고, 漢代의 boŋ음을 표시한다.

(2) 𠵼(啐)

《說文解字》 2篇上 口部 ‘啐’에 대해서 許慎은 “大笑也, 从口奉聲. 讀若《詩》曰瓜瓞奉奉.”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正篆 ‘珙’에서도 사용한 《詩·大雅·生民》의 “瓜瓞奉奉”을 인용하여 “艸盛兒”의 의미를 지니는 讀若字 奉으로 어음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啐과 奉은 같은 聲符를 가진 글자이며, 《詩經》의 奉奉은 현존 시경 판본에서 ‘啐啐’으로도 기록된다.<sup>10)</sup> 奉과 啐이 假借관계임을 알 수 있다.

“大笑也”의 正篆 啐은 《廣韻》에서 董韻 補蠓切, 上聲 開口1等 並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漢代 발음은 boŋ으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奉은 《廣韻》에서 董韻 補蠓切이며, 同音字로서 “大笑也” 의미의 啐을 같이 수록하고 있다.

許慎이 표기한 正篆 啐의 발음은 漢代의 boŋ음이다.

(3) 𨇗(趨)

《說文解字》 2篇上 走部 ‘趨’에 대해서 許慎은 “走也. 从走戴聲. 讀若《詩》威儀秩秩”이라고 하였다. 《詩·大雅·生民》의 “威儀抑抑, 德音秩秩”구문을 하나로 합쳐서 인용하고 있으며, 正篆 ‘趨’의 발음을 ‘秩’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의 “秩”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積兒(차곡차곡 바르게 쌓이는 모양)”라고 해석하고 있다.

“走兒” 의미의 正篆 趨<sup>11)</sup>은 《廣韻》에서 質韻 直一切, 入聲 開口3等

10) 《懸吐完譯詩經集傳》, 傳統文化硏究會, 1993, 245쪽.

11) 《廣韻》 수록자는 趨의 異體字이지만, 의미를 통해 같은 글자임을 판단할 수

澄母字에 수록하고 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趨은 漢代에 diet<sup>12)</sup>으로 발음된다. “積兒”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秩 역시 《廣韻》에서 正篆 趨과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趨에 대해서 “積兒”의 의미를 지니는 秩로서 표음하고, 漢代 diet음을 표시하였다.

#### (4) 眇(眇)

《說文解字》 4篇上 目部 ‘眇’에 대해서 許慎은 “直視也. 从目必聲. 讀若《詩》云泌彼泉水”이라고 하였다. 《詩·邶風·泉水》의 “泌彼泉水”를 인용하였고, 正篆 ‘眇’의 발음을 ‘泌’로 표기하고 있다. 眇와 泌는 같은 聲符를 가진 글자이다. “泌”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俠流也(가볍고 빠르게 흐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直視也” 의미의 正篆 眇은 《廣韻》에서 至韻 兵媚切의 去聲 合口3等 幫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眇은 漢代에 piuei로 擬音할 수 있다.

“泉兒” 의미의 “俠流也”의 讀若字 泌은 《廣韻》에서 正篆 眇와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眇에 대해서 “泉의 가볍고 빠르게 흐르는 모습”의 의미를 지니는 泌로서 표음하고, 漢代 piuei음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眊(眊)

《說文解字》 4篇上 目部 ‘眊’에 대해서 許慎은 “視高兒. 从目戔聲. 讀若《詩》曰施罟濊濊”라고 하였다. 《詩·衛風·碩人》의 “施罟濊濊”를 인용하였고, 正篆 ‘眊’의 발음을 ‘濊’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의 “濊”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礙流也(흐름을 막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있다.

12) 王力の 擬音 표기에는 i 아래에 3等표기 ˊ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3등과 4등을 같은 細音으로 간주하여 3等표기 ˊ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視高兒” 의미의 正篆 𪔑은 《廣韻》에서 末韻 呼括切의 入聲 合口1等 曉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𪔑은 漢代에 xuat로 擬音할 수 있다.

“礙流也”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濊은 《廣韻》에서 “水聲”의 의미로 正篆 𪔑와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𪔑에 대해서 “흐르는 물이 막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濊로서 표음하고, 漢代 xuat음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𪔑(𪔑)

《說文解字》 4篇上 𪔑部 ‘𪔑’에 대해서 許慎은 “佳欲逸走也. 从又持之, 𪔑𪔑也. 讀若《詩》云穰彼淮夷之穰, 一曰視遽兒.”라고 하였다. 《詩·魯頌·泂水》의 “穰彼淮夷”를 인용하였고, 正篆 ‘𪔑’의 발음을 ‘穰’로 표기하고 있다. ‘穰’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芒粟也(까끄라기 조)”라고 해석하고, 구조는 “从禾廣聲”로 분석하였다.

《說文解字》에 穰과 假借관계에 있는 글자들이 나타난다. ‘穰’자 아래에서 “《詩》曰穰彼淮夷”라고 하였다. 《集韻》 梗韻 孔永切(上聲 見母 合口三聲) 아래에서도 “穰彼淮夷”라 하여, 穰과 穰이 假借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說文解字》의 ‘慮’자 아래에서 “《詩》曰慮彼淮夷”라고 하였다. 許慎은 穰·穰·慮 세 글자의 假借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正篆 𪔑은 《廣韻》에서 藥韻 居縛切의 入聲 合口3等 見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𪔑은 漢代에 kiwak로 擬音할 수 있다.

“芒粟也”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穰은 《廣韻》에서 梗韻 古猛切, 上聲 合口二等 見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漢代 穰의 발음은 koaŋ(西漢)과 koen(東漢)으로 擬音할 수 있다.

正篆 𪔑와 讀若字 穰의 漢代 발음은 모두 見母字로 聲母가 일치하고, 韻腹이 a와 a로 低元音의 가까운 발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韻尾가 k와 ŋ로 차이가 난다. 許慎은 正篆 𪔑에 대해서 讀若字 穰를 들어 유사음

으로 발음을 표기했다.

그러나 矍과 穉의 발음관계가 더 밀접할 수는 없을까? 본고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먼저, 穉의 假借字의 발음을 통해 두 글자의 音近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다.

假借字 穉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覺悟也”라고 해석하였다. 《廣韻》에 ‘遠也’의 穉이 梗韻 俱永切의 合口3等 見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漢代 穉의 발음은 kiueŋ로 擬音할 수 있다.

假借字 應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闊也. 廣大也”라고 해석하였다. 《廣韻》에 “大也, 寬也”의 應는 蕩韻 丘晃切, 上聲 合口1等 溪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漢代 應의 발음은 k'ɑŋ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및 그 假借字의 발음은 漢代에 모두 牙音 清音의 見母字나 溪母字이고, 韻尾 ŋ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正篆 矍과는 韻尾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說文解字》 ‘矍’의 “佳欲逸走也. 从又持之, 瞿瞿也. 讀若《詩》云穉彼淮夷之穉. 一曰視遽兒.”에 대한 段玉載의 注 “瞿瞿, 各本作矍矍”<sup>13)</sup>을 근거로 矍의 다른 발음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說文解字》 瞿部에는 瞿와 矍 두 글자만 수록되어 있다. 《康熙字典》은 瞿에 대해서 “徐曰警視兒”라 하고, 矍에 대해서 “徐曰左右警顧也”라고 하여 같은 의미를 기록한다. 두 글자의 의미가 같으며, 판본에 따라 같이 사용되고 있어, 독음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矍瞿는 从瞿의 공통점이 있다. 瞿에 대해서 《說文解字》는 “从佳目, 目亦聲”이라 하여 ‘目’의 聲符 기능을 명시하고 있어, 瞿矍 矍 세 글자가 어음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康熙字典》 瞿에 “《六書故》通作矍”라고 하였다. 矍의 발음은 《廣韻》에서 遇韻 九遇切와 梗韻 苦礦切의 上聲 合口2等 溪母字로 수록한다. 矍의 두 발음 중 梗韻

13)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149쪽.

苦礦切은 k'oan(西漢)과 k'oer(東漢)으로 擬音할 수 있다. 이 발음은 讀若字 및 그 假借字 漢代 聲母의 牙音 清音, 韻腹, 韻尾의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正篆 𠄎이 漢代에 kiuk·koan 유사음 등의 讀書音을 가졌고, 許慎이 讀若字 穡을 讀若字로 삼아 漢代 koan음이나 유사음을 표시했을 가능성도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7) 𠄎(受)

《說文解字》 4篇下 受部 受에 대해서 許慎은 “物落也. 上下相付也. 从爪又. 凡受之屬皆从受. 讀若《詩》標有梅.”라고 하였다. 《詩·召南·標有梅》의 “標有梅”를 인용하였고, 正篆 ‘受’의 발음을 ‘標’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 ‘標’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擊也”라고 해석한다.

正篆 受은 《廣韻》에 小韻 平表切의 上聲 開口3等 並母字로 수록되었다. 受은 漢代에 bio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標는 《廣韻》에서 正篆 受와 同音 苻少切의 上聲 開口3等 並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漢代 標의 발음 역시 bio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이 正篆 受에 대해서 “떨어지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標로서 표음하였고, 漢代 bio음을 표시하였다.

(8) 𠄎(脛)

《說文解字》 4篇下 肉部 脛에 대해서 許慎은 “挑取骨閒肉也. 从肉𠄎聲. 讀若《詩》曰啜其泣矣.”라고 하였다. 《詩·王風·中谷有蕓》의 “啜其泣矣”를 인용하였고, 正篆 ‘脛’의 발음을 ‘啜’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의 “啜”에 대해서 許慎은 “嘗也. 从口𠄎聲. 一曰啄也”이라고 하였다.

正篆 脛은 《廣韻》에 “骨閒, 髓也” 의미로 표기되고, 薛韻 陟劣切의 入聲 合口3等 知母字로 수록되고 있다. 이 글자는 《集韻》에서 “挑取骨閒肉也”로 표기된다. 脛은 漢代에 tiuat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啜는 《廣韻》에서 薛韻 昌悅切, 入聲 穿母 合口3等 발음과 함께, 薛韻 陟劣切의 入聲 合口3等 知母字 발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薛韻 陟劣切의 入聲 合口3等 知母字 발음은 正篆 脛과 同音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許慎이 표기한 正篆 脛의 讀若字 啜의 漢代 발음을 tiuat로 판단한다. 許慎이 正篆 脛을 “(우느라) 말이 정확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啜로 표음하고, 漢代 tiuat음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9) 觶(觶)

《說文解字》 4篇下 衣部 觶에 대해서 許慎은 “用角低仰便也. 从羊牛角. 讀若《詩》曰觶觶角弓.”이라고 하였다. 《詩·小雅·桑扈》의 “觶觶角弓”를 인용하였고, 正篆 ‘觶’의 발음을 같은 글자 ‘觶’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은 현존 판본에서 “駢駢角弓”으로 기재<sup>14)</sup>되고, 段玉載 注에서 “今詩作駢駢…鉉本所以刪讀若也”<sup>15)</sup>라고 하였다.

正篆 觶은 《集韻》에서 清韻 思營切의 平聲 合口3等 心母字로 수록되어 있고, 아래에 同音字로 “牲赤色”의 駢가 수록되어 있다. 觶과 駢은 漢代에 sien음으로 발음되었고, 同音假借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徐鉉本에는 讀若이 삭제되어 있지만, 許慎이 觶의 다양한 발음 중 “觶觶角弓”의 “弓調和貌”<sup>16)</sup>을 나타내는 漢代 ‘觶’의 발음 sien을 표시하기 위해 《詩經》의 구문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 縗(縗)

《說文解字》 8篇上 衣部 縗에 대해서 許慎은 “鬼衣也. 从衣, 縗省聲. 讀若《詩》曰葛藟縗之. 一曰若靜女其袿之袿.”라고 하였다. 《詩·周南·樛木》의 “葛藟縗之”를 인용하였고, 正篆 ‘縗’의 발음을 ‘縗’으로 표기하고

14) 《懸吐完譯試經集傳下》, 傳統文化研究會, 1993, 163쪽.

15)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187-188쪽.

16) 《康熙字典》에 息營切의 觶에 대해서 “弓調和貌, 今本作駢”이라고 하였다.

있다. 이 구문의 “縈”에 대해서 許慎은 “收卷也. 从糸, 熒省聲”이라고 하였다. 許慎의 분석에 의하면, 두 글자의 聲符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正篆 縈는 《廣韻》에 淸韻 於營切的 平聲 合口3等 影母字로 수록되었다. 縈은 漢代音 Oieŋ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縈는 《廣韻》에 “繞也”의 의미로 표기되고, 縈을 淸韻 於營切的 平聲 合口3等 影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縈의 漢代 발음 역시 Oieŋ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이 正篆 縈에 대해서 같은 聲符를 가진 縈을 들어 표음하였고, 漢代 Oieŋ음을 표시하였다.

#### (11) 魘(魘)

《說文解字》 9篇上 鬼部 魘에 대해서 許慎은 “見鬼驚詞. 从鬼, 難省聲. 讀若《詩》受福不儺.”라고 하였다. 《詩·小雅·桑扈》의 “受福不儺”를 인용하였고, 正篆 ‘魘’의 발음을 ‘儺’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의 ‘儺’의 本義에 대해서 許慎은 “行有飾也”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서 ‘受福不儺’가 ‘受福不那’로 표기되고, 段玉載 注에서도 “小雅桑扈受福不那, 傳曰, 那, 多也. 此作不儺, 疑字之誤.”<sup>17)</sup>라고 하였다.

“人值鬼驚聲” 의미의 正篆 魘은 《廣韻》에 歌韻 諾何切的 平聲 開口1等 泥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漢代音 na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儺은 《廣韻》에서 正篆 魘과 같은 歌韻 諾何切的 平聲 開口1等 泥母字로 수록되고 있다. 또한 “多也”의 ‘那’ 역시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儺와 那의 漢代 발음 역시 na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이 正篆 魘를 儺로 표음하고, 漢代 na음을 표시하였다.

#### (12) 嶧(嶧)

《說文解字》 9篇下 山部 嶧에 대해서 許慎은 “海中往往有山可依止, 曰

17)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440쪽.

𪔐. 从山鳥聲. 讀若《詩》曰“葛與女蘿.”라고 하였다. 《詩·小雅·桑扈》의 “葛與女蘿”를 인용하였고, 正篆 ‘𪔐’의 발음을 ‘葛’로 표기하고 있다. 이 구문의 ‘葛’에 대해서 許慎은 “奇生艸也. 从艸鳥聲.”이라고 하였다.

正篆 𪔐는 《集韻》에 篠韻 丁了切의 上聲 開口4等 端母字로 수록되었다. 漢代音 tio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葛도 《集韻》에서 篠韻 丁了切의 上聲 開口4等 端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𪔐에 대해서 같은 聲符 葛를 들어 표음하고, 漢代 tio음을 표시하였다.

### (13) 𪔑 (𪔑)

《說文解字》 10篇下 焱部 𪔑에 대해서 許慎은 “盛兒. 从焱在木上. 讀若《詩》莘莘征夫.”라고 하였다. 《詩·小雅·鹿鳴》의 “莘莘征夫”를 인용하였고, 正篆 ‘𪔑’의 발음을 ‘莘’으로 표기하고 있다. 현존 판본에서는 ‘莘莘征夫’가 ‘駢駢征夫’로 표기되고, 段玉載 注에서 “今《毛詩·皇皇者華》駢駢征夫.”<sup>18)</sup>라고 하였다. 許慎은 ‘莘’을 《說文解字》에 수록하지 않지만, 駢에 대해서 “馬有疾足也. 从馬失聲.”이라 하였다.

正篆 𪔑는 《廣韻》에 臻韻 所臻切의 平聲 開口2等 疏母字로 수록되고 있다. 𪔑는 漢代音 feən으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莘은 《說文解字》에 수록되지 않지만, 《廣韻》에 “地名” 莘와 “馬多”의 駢가 모두 臻韻 所臻切의 平聲 開口2等 疏母字로 수록되어 正篆 𪔑와 同音字로 표기되고 있다.

許慎은 正篆 𪔑에 대해 駢와 同音假借의 관계에 있는 莘을 들어 표음하였고, 漢代 feən음을 표시하였다.

18)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495쪽.

(14) 霽(霽)

《說文解字》 10篇下 大部 霽에 대해서 許慎은 “空大也. 从大歲聲. 讀若《詩》施罟濊濊”라고 하였다. 《詩·衛風·碩人》의 “施罟濊濊”를 인용하였고, 正篆 ‘霽’의 발음을 ‘濊’로 표기하고 있다. 현존 판본에서는 ‘施罟濊濊’가 ‘施罟濊濊’로 표기된다. 許慎은 ‘濊’의 本義에 대해서 “礙流也(흐름을 막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瞞(瞞)의 발음을 표기할 때도, 許慎은 《詩·國風·衛》의 “施罟濊濊”을 인용하였다.

正篆 霽는 《廣韻》에서 末韻 呼括切의 入聲 合口1等 曉母字에 수록되어 있다. 漢代 xuat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礙流也”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濊는 《廣韻》에서 正篆 霽와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霽에 대해서 濊를 들어 표음하였고, 漢代 xuat음을 표시하였다.

(15) 戴(戴)

《說文解字》 10篇下 大部 戴에 대해서 許慎은 “大也. 从大戠聲. 讀若《詩》戴戴大猷.”라고 하였다. 《詩·小雅·小旻》의 “戴戴大猷”를 인용하였고, 正篆 ‘戴’의 발음을 같은 글자 ‘戴’로 표기하고 있다. 현존 판본에서는 ‘戴戴大猷’가 ‘秩秩大猷’로 표기되고, 段玉載 注에서도 “〈小雅·巧言〉文戴戴當作秩秩. 今《毛詩》正作秩秩.”<sup>19)</sup>이라고 하였다. 許慎은 戴의 假借字 秩의 本義에 대하여 “積兒(차곡차곡 바르게 쌓은 모양)”라고 해석하고 있다.

正篆 戴는 《廣韻》에서 質韻 直一切, 入聲 開口3等 澄母字에 수록되어 있고, 讀若字 戴(“積也”)의 假借字 秩이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漢代 diet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이 正篆 戴에 대해서 《詩·小雅·祈父》 “戴戴大猷”에 나오는 秩의

19)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497쪽.

同音假借字 戴로서 표음하였고, 漢代 diet음을 표시하였다.

(16) 帶(帶)

《說文解字》 12篇上 手部 帶에 대해서 許慎은 “撮取也。从手帶聲。讀若《詩》曰蠓蝻在東。”이라고 하였다. 《詩·鄘風·蠓蝻》의 “蠓蝻在東”를 인용하였고, 正篆 ‘帶’의 발음을 蠓로 표기하고 있다. 현존 판본에서는 ‘蠓蝻在東’가 ‘蠓蝻在東’으로 표기되고, 段玉載 注에서도 蠓 아래에 “今詩作蝻.”<sup>20)</sup>라고 하였다. 許慎은 이 구문의 蠓에 대해서 “蠓蝻, 虹也。从虫帶聲”라고 하였다. 許慎의 분석에 의하면, 帶와 蠓는 같은 聲符의 글자이다. “撮取”의 의미의 正篆 帶에 대해서 《廣韻》에서는 霽韻 都計切, 去聲 開口4等 端母字에 수록하고 있다. 帶은 漢代 tie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蠓蝻(무지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蠓는 《廣韻》에서 正篆 帶 및 假借字 蝻과 함께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帶에 대해서 讀若字 蠓로서 표음하였고, 漢代 tie음을 표시하였다.

(17) 擊(擊)

《說文解字》 12篇上 手部 擊에 대해서 許慎은 “固也。从手収聲。讀若《詩》赤鳥擊擊.”이라고 하였다. 《詩·邶風·狼跋》의 “赤鳥擊擊(붉은 신이 한결같으시다)”를 인용하여, 正篆 ‘擊’의 발음을 같은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說文解字》 졸 아래에도 “讀若《詩》云赤鳥几几.”라고 하였으며, 현존 판본에서도 ‘赤鳥擊擊’가 ‘赤鳥几几’으로 표기되며, 段玉載 注에서도 擊 아래에 “擊擊, 當依邶風作几几.”<sup>21)</sup>라고 하였다. 許慎은 几의 本義에 대해서 “尻几也”라고 하였다.

正篆 및 讀若字인 擊는 《廣韻》에서는 山韻 苦閑切, 平聲 開口2等 溪

20)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680쪽.

21)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609쪽.

母字와 先韻 苦堅切의 平聲 開口4等 溪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그 중 《詩·邠風·狼跋》의 “赤烏擊擊”의 의미에 해당하는<sup>22)</sup> 擊의 발음은 漢代 k'eən 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擊은 漢代에 k'eən(苦堅切)이나 k'ien(苦堅切)으로 발음되었다. 許慎은 “赤烏擊擊”을 인용하여 擊의 漢代 발음 k'eən을 표기하고 있다.

(18) 嫗(嫗)

《說文解字》 12篇下 女部 嫗에 대해서 許慎은 “竦身也. 从女嫗聲, 讀若《詩》糾糾葛屨.”라고 하였다. 《詩·魏風·葛屨》의 “糾糾葛屨”를 인용하였고, 正篆 ‘嫗’의 발음을 糾로 표기하고 있다. 許慎은 이 구문의 糾에 대해서 “繩三合也. 从糸卩, 卩亦聲.”이라고 하였다.

“竦身” 의미의 正篆 嫗는 《廣韻》에서 小韻 市沼切, 上聲 開口3等 見母字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忝韻 兼玷切, 上聲 開口4等 見母字와 德韻 古得切, 入聲 開口1等 見母字에 수록되고 있다. 그 중 糾와 同音<sup>23)</sup>으로 수록된 것은 小韻 市沼切, 上聲 開口3等 見母字이다. 이 발음의 漢代音은 kio로 擬音할 수 있다.

“窈窕舒兒(영성하게 엷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糾는 《廣韻》에서 黝韻 居黝切의 上聲 開口3等 見母자의 음(漢代 kiu)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集韻》에 讀若字 糾은 正篆 嫗와 함께 同音字로 小韻 舉夭切의 上聲 開口3等 見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嫗에 대해서 讀若字 糾를 들어 표음하였고, 漢代 kio음을 표시하였다.

(19) 戣(戣)

《說文解字》 12篇下 戈部 戣에 대해서 許慎은 “絕也. 一曰田器古文.

22) 《集韻》 山韻 丘閑切 擊에 “《說文》固也. 引《詩》赤烏擊擊.”이라 하였다.

23) 《集韻》 小韻 舉夭切에 嫗와 糾가 同音字로 나온다.

从从持戈. 讀若咸, 一曰讀若《詩》攸攸女手.”라고 하였다. 正篆 ‘攸’의 발음을 咸과 攸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 중 攸의 발음은 《詩·魏風·葛屨》의 “攸攸女手”를 인용하였다. 현존 판본에서는 ‘攸攸女手’가 ‘摻摻女手’으로 표기되고, 段玉載 注에서도 攸 아래에 “《魏風·葛屨》曰摻摻女手”<sup>24)</sup>라 하였으며, 《廣韻》에서도 攸과 摻을 같은 글자로 표기한다.<sup>25)</sup> 許慎은 攸에 대해서 “好手兒. 从手鐵聲. 《詩》曰攸攸女手.”라고 하였다.

“絶也”의 의미의 正篆 攸은 《廣韻》에서 鹽韻 子廉切的 平聲 開口3等 精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集韻》에서도 鹽韻 將廉切的 平聲 開口3等 精母字에 수록되어 있다. 漢代 tsiam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好手兒(예쁜 손모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讀若字 攸는 《廣韻》에서 咸韻 所咸切的 平聲 開口2等 疏母字(漢代 feəm)로 표기한다. 그러나 《集韻》에는 讀若字 攸에 대해서 正篆 攸과 같은 鹽韻 將廉切(平聲 開口3等 精母字, 漢代 tsiam)과 鹽韻 師炎切(平聲 開口3等 疏母字, 漢代 fiam), 咸韻 師咸切(平聲 開口2等 疏母字, feəm)로 표기한다.

그러므로 許慎은 正篆 攸에 대해서 讀若字 攸을 들어 표음하고, 漢代 tsiam음을 표시하였다.

## (20) 𠄎(쫐)

《說文解字》 14篇下 己部 쫐에 대해서 許慎은 “謹身有所承也. 从己丞. 讀若《詩》云赤舄几几.”라고 하였다. 《詩·豳風·狼跋》의 “赤舄几几”를 인용하였고, 正篆 ‘쫐’의 발음을 几로 표기하고 있다. 위에서 분석한 《說文解字》 𠄎(擊)의 표음에서는 같은 구문이지만, 인용문을 “赤舄擊擊”로 표기하였다. 許慎은 几에 대해서 “尻几也. 象形”라고 하였다.

正篆 쫐은 《廣韻》에서 隱韻 居隱切的 上聲 開口3等 見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的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24)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600쪽.

25) 《集韻》 咸韻 所咸切에 攸와 摻을 같은 글자로 표기한다.

kiən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集韻》에서는 隱韻 几隱切(上聲 開口3等 見母字) 외에도 止韻 苟起切의 上聲 開口3等 見母字의 음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자의 漢代 발음은 kiei이다.

讀若字 几는 《廣韻》에서 旨韻 居履切의 上聲 開口3等 見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几은 漢代에 kiei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許慎은 正篆 几에 대해 几를 들어 표음하였고, 漢代 kiei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詩經》편장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周南〉	葛藟縈之	縈	縈	Oieŋ
〈召南〉	摽有梅	爻	摽	bio
〈邶風〉	泌彼泉水	泌	泌	piuei
〈鄘風〉	蟋蟀在東	摯	蟋	tie
〈衛風〉	施罝濊濊	賊	濊	xuut
		夤	濊	
〈王風〉	啜其泣矣	啜	啜	tiuat
〈魏風〉	糾糾葛屨	屨	糾	kio
	攴攴女手	攴	攴	tsiam
〈邠風〉	赤舄擊擊	擊	擊	k'eən
	赤舄几几	几	几	kiei
〈小雅·鹿鳴〉	莘莘征夫	夔	莘	ʃeən
〈小雅·小旻〉	戢戢大猷	戢	戢	diet
〈小雅·桑扈〉	解解角弓	解	解	sieŋ
	受福不難	難	難	na
	葛與女蘿	葛	葛	tio
〈大雅·生民〉	瓜瓞拳拳	玕	拳	boŋ
		嗥	拳	
	威儀秩秩	越	秩	diet
〈魯頌〉	穰彼淮夷	嬰	穰	koəŋ

〈國風〉 10句·〈小雅〉 5句·〈大雅〉 2句·〈頌〉 1句가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正篆 擊와 쫓에 대해서 許慎은 같은 구문을 인용하여 발음을 표기하였으나, 각각 ‘赤鳥擊擊’와 ‘赤鳥几几’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당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 2. 《書》·《易》 引用 13句

### 1) 《書》 引用 4句

《書》의 구문을 인용한 表音자료에는 〈虞書〉·〈夏書〉·〈商書〉의 4句가 인용되었다.

#### (1) 冥(宥)

《說文解字》 7篇下 宀部 宥에 대해서 許慎은 “冥合也. 从宀𠂔. 讀若《書》曰藥不瞑眩.”이라고 하였다. 《書·商書·說命》에 “若藥, 弗瞑眩, 厥疾弗瘳.(약을 먹고 어지러워 눈이 감기고 메스껍지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冥에 대해서 “翕目也. 从目冥.”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宥의 발음을 冥으로 표기하고 있다.

“冥合”의 正篆 宥는 《廣韻》에 霰韻 莫甸切的 去聲 開口4等 明母字로 표기된다. 이 발음은 漢代 mian음으로 擬音된다.

讀若字 冥는 《廣韻》에서 霰韻 莫甸切的 去聲 開口4等 明母에 수록되어, 正篆 宥와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은 正篆 宥에 대해 讀若字 冥을 들어 표음하였고, 漢代 mian음을 표기하고 있다.

#### (2) 窳(窳)

《說文解字》 7篇下 宀部 窳에 대해서 許慎은 “塞也. 从宀𠂔聲, 讀若《虞書》曰窳三苗之窳.”라고 하였다. 《書·虞書·舜典》에 “窳三苗于三危(三

苗를 三危로 보내고)라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竄에 대해서 “匿也. 从鼠在穴中.”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窾의 발음을 竄으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窾는 《集韻》에서 泰韻 取外切의 去聲 合口1等 清母字로 표기된다. 이 발음은 漢代音 ts'ua:t으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窾 역시 《集韻》에서 正篆 窾와 같은 泰韻 取外切의 去聲 合口1等 清母字로 표기된다.

許慎은 正篆 窾에 대해 讀若字 窾를 들어 표음하고, 漢代 ts'ua:t음을 표기하고 있다.

### (3) 灑(灑)

《說文解字》 11篇上 水部 灑에 대해서 許慎은 “醜酒也. 一曰浚也. 从网水, 焦聲, 讀若<夏書>天用剿絕.”이라고 하였다. 《書·夏書·甘誓》에 “天用勦(剿)絕其命(하늘이 그 命을 끊으시니)”라 하였다. 현존 판본에는 勦와 剿가 모두 나타난다. 段玉載 注에는 “今本从力, 尤誤.”<sup>26)</sup>라고 하였다. 《說文解字》는 勦이 수록되어 있는데, “勞也. 从力巢聲. 《春秋傳》曰安用勦民”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灑의 발음을 剿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灑는 《廣韻》에서 小韻 子小切의 上聲 開口3等 精母字로 표기된다. 이 발음은 漢代 tsio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剿도 《廣韻》에서 正篆 灑와 함께 小韻 子小切의 上聲 開口3等 精母字로 표기된다.

許慎은 正篆 灑에 대해 讀若字 剿를 들어 표음하고, 漢代 tsio음을 표기하고 있다.

### (4) 紕(紕)

《說文解字》 13篇上 糸部 紕에 대해서 許慎은 “氏人綱也. 从糸比聲, 讀若<禹貢>玼珠.”이라고 하였다. 《書·夏書·禹貢》에 “淮夷, 蠙珠暨魚(淮

26)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567쪽.

水の 오랑캐들은 조개와 구슬과 어물을 바치니)”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는 玼가 蠙으로 나타난다. 《說文解字》에는 玼에 대해서 “珠也. 从玉比聲. 宋弘云: ‘淮水中出玼珠.’ 玼, 珠之有聲.”이라 하였다. 그리고 蠙에 대해서 “《夏書》玼, 从虫賓.”이라고 하여 《書經·夏書·禹貢》에 玼 대신에 蠙을 쓰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許慎은 正篆 紕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玼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紕는 《集韻》에 旨韻 卑履切의 上聲 開口3等 幫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piei로 발음된다. 그 외에도 《集韻》에는 玼·蠙<sup>27)</sup>와 연관된 발음으로 先韻 蒲眠切의 平聲 開口4等 並母의 발음이 나타난다. 이 발음은 漢代에 bian음으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玼(蠙)은 《廣韻》 眞韻 符眞切의 平聲 開口3等 並母의 발음으로 수록된다. 그러나 《集韻》에는 正篆 紕과 同音인 先韻 蒲眠切의 平聲 開口4等 並母가 표기되고 있다.

許慎은 正篆 紕에 대해 讀若字 玼(蠙)을 들어 표음하고, 漢代 bian음을 표기하고 있다.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書》편장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虞書〉	竄三苗	竄	竄	ts'ua:t
〈夏書〉	天用剿絕	濯	剿	tsio
	玼珠	紕	玼	bian
〈商書〉	藥不瞑眩	宥	瞑	mian

〈虞書〉 1句·〈夏書〉 2句·〈商書〉 1句의 4개 구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同音字로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集韻》에서는 玼과 璠이 異體字로 표기되고, 아래에 “珠名. 或作璠. 璠”이라 하였다.

2) 《易》 引用 9句

《易》을 인용한 表音자료에는 〈重天乾〉·〈水雷屯〉·〈澤天夫〉·〈澤地萃〉·〈火山旅〉·〈風水渙〉·〈水火既濟〉·〈繫辭下傳〉의 9句가 인용되었다. 그 중 卦名 萃와 屯도 인용되었다.

(1) 睽(睽)

《說文解字》 4篇上 目部 睽에 대해서 許慎은 “目深兒也. 从目睽. 讀若《易》曰勿卹之卹.”이라고 하였다. 《易·澤天夫》에 “莫夜, 有戎, 勿恤”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는 卹가 恤로 나타난다. 段玉載 注에도 “恤與卹音義皆同.”<sup>28)</sup>이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卹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恤은 보인다. 恤에 대해서 “憂也. 收也. 从心血聲.”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睽에 대해 卹(恤)로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目深兒”의 正篆 睽은 《廣韻》에서 屑韻 於決切의 入聲 合口4等 影母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王力의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を 참고하면, ○iuat로 발음된다. 《集韻》에는 그 외에도 屑韻 古穴切의 入聲 合口4等 見母의 발음이 나타난다. 이 발음은 漢代에 kiuet이다. 《集韻》에서는 睽의 異體字 眈가 수록되어 있다.<sup>29)</sup> 眈는 《廣韻》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同音字 玃戠颯 등이 《廣韻》 術韻 許聿切의 入聲 合口3等 曉母에 나타난다. 이 발음은 漢代에 xiuət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正篆 睽의 발음에는 xiuət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憂也”의 讀若字 恤(卹)은 《廣韻》에서 術韻 辛聿切의 入聲 合口3等 心母로 수록된다. 이 발음은 漢代에 siuət으로 擬音할 수 있다.

正篆 睽(眈)의 xiuət와 讀若字 恤(卹)의 siuət을 비교하면, 韻母가 완전히 같다. x와 s는 모두 次清音의 同位관계<sup>30)</sup>로서 발음이 매우 유사하여

28)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511쪽.

29) 眈는 《集韻》 質韻 休必切에 수록되어 있고, 동음자 玃戠颯 등이 수록된다.

30) 발음부위는 다르지만 발음방법이 같아서 互變하기 쉬운 관계를 뜻한다. 陳新雄, 《古音學發微》, 文史哲出版社, 1996, 672쪽.

옛 중국인들이 互變되기 쉬웠다. 許慎의 발음에 있어 正篆 𣎵와 讀若字 恤(郵)의 발음이 매우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許慎은 正篆 𣎵에 대해 讀若字 郵(xiuət)를 들어, 漢代 siuət음을 표기하고 있다.

### (2) 𣎵(𣎵)

《說文解字》 4篇下 骨部 𣎵에 대해서 許慎은 “骨間黃汁也。从骨易聲。讀若《易》曰夕惕若厲。”라고 하였다. 《易·重天乾》에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厲, 無咎”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 惕에 대해서 “敬也。从心易聲.”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𣎵에 대해 같은 聲符의 惕을 讀若字로 삼아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骨間黃汁”의 正篆 𣎵와 “憂也”의 讀若字 惕은 《廣韻》에서 모두 錫韻 他歷切的 入聲 開口4等 透母의 발음이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漢代에 t'iek으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은 正篆 𣎵에 대해 讀若字 惕를 들어, 漢代 t'iek음을 표기하고 있다.

### (3) 榦(榦)

《說文解字》 6篇上 木部 榦에 대해서 許慎은 “母純也。从木侖聲, 讀若《易》卦屯之屯.”이라고 하였다. 《易·水雷屯》에서 屯卦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屯에 대해서 “難也。象艸木之初生。屯然而難, 从中貫一, 屈曲之也。一, 地也。《易》曰屯, 剛柔始交而難生.”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榦에 대해 屯으로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正篆 榦과 讀若字 屯 두 글자에 대해서 《集韻》에는 諄韻 株倫切的 平聲 合口3等 知母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tiuən으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榦에 대해 讀若字 屯으로서 漢代 tiuən음을 표기하고 있다.

(4) 幘(幘)

《說文解字》 7篇下 巾部 幘에 대해서 許慎은 “載米甗也。从巾盾聲。讀若《易》卦屯之屯。”이라고 하였다. 許慎은 正篆 幘의 발음을 《易·水雷屯》의 屯卦 ‘屯’으로 표시하고 있다.

正篆 幘과 讀若字 屯 두 글자는 《廣韻》에서 諄韻 陟倫切的 平聲 合口3等 知母의 발음을 표기되어 있다. 漢代音 tiuan으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은 正篆 幘에 대해 讀若字 屯을 들어, 漢代 tiuan음을 표기하고 있다.

(5) 𧈧(𧈧)

《說文解字》 10篇下 大部 𧈧에 대해서 許慎은 “壯大也。从三大三目。二目爲𧈧，三目爲𧈧，益大也。一曰迫也。讀若《易》慮羲氏。《詩》曰不醉而怒謂之𧈧。”이라고 하였다. 《易·繫辭下傳》에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옛날 포희씨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할 때)”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는 慮羲氏が 包犧氏로 기재되어 있고, 段玉載 注에도 “今《易·繫辭》作包犧氏.”<sup>31)</sup>라 하였다. 《說文解字》에서는 羲에 대해서 “气也。从兮義聲.”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𧈧에 대해 讀若字 羲로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壯大也”의 正篆 𧈧는 《廣韻》 至韻 平祕切的 去聲 開口3等 並母의 발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王力의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biei로 발음된다. 𧈧에 대해 段玉載 注에는 許器反의 음이 표기되어 있다. 《集韻》에는 𧈧에 대해서 “𧈧眉，壯大兒，亦作𧈧.”라고 하여 異體字 ‘眉’를 언급하였다. 同義異體字 眉는 《集韻》에서 虛器切，去聲 至韻 開口3等 曉母의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이 段玉載 注의 許器反의 발음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 𧈧의 又音으로 虛器切的 발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발음은 漢代에 xiei로 나타난다.

讀若字 羲에 대해서 段玉載는 許羈切 17部로 표기하고 있다. 《廣韻》에도 許羈切，平聲 支韻 開口3等 曉母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王力의

31) 許慎 撰，段玉載 注， 앞의 책， 504쪽.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を 참고하면, xie로 발음된다.

《廣韻》支脂之 세 운의 開口三等 글자는 王力에 의하면 隋唐시대에 ‘i’음으로 완전히 합병된다. 許慎의 발음에서 羸와 羲가 같거나 매우 유사하게 발음되었다. 許慎은 正篆 羸에 대해 讀若字 羲(xie)으로서 漢代 xiei 음을 표기하고 있다.

#### (6) 惓(惓)

《說文解字》10篇下 心部 惓에 대해서 許慎은 “憂也. 从心卒聲. 讀與《易》萃卦同.”이라고 하였다. 引用文을 활용하여 표음하는 자료 중 유일하게 ‘讀與’의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易·澤地萃》에 “萃, 亨王假有廟. (萃는 형통하니 왕이 사당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여 萃卦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萃에 대해서 “艸兒. 从艸卒聲, 讀若瘁.”라고 하였다. 許慎은 正篆 惓에 대해 같은 聲符의 萃로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憂愁”의 正篆 惓은 《廣韻》에 至韻 秦醉切의 去聲 合口3等 從母의 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王力の 漢代 擬音を 참고하면, dziuəi로 발음된다.

讀若字 萃도 《廣韻》에서 至韻 秦醉切의 去聲 合口3等 從母의 同音으로 표기되어 있다.

許慎은 正篆 惓에 대해서 讀若字 萃을 들어, 漢代 dziuəi음을 표기하고 있다.

#### (7) 𢀓(𢀓)

《說文解字》10篇下 𢀓部 𢀓에 대해서 許慎은 “心疑也. 从三心. 凡𢀓之屬皆从𢀓. 讀若《易》旅瑣瑣.”라고 하였다. 《易·火山旅》에 “旅瑣瑣(여행함에 자갈하다)”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는 瑣에 대해서 “玉聲也. 从玉肖聲.”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𢀓에 대해 瑣를 讀若字로 삼고 있다.

“心疑也”의 正篆 𢀓은 《廣韻》에 支韻 姉宜切의 平聲 合口3等 精母와 紙韻 才捶切의 上聲 合口3等 從母, 果韻 蘇果切의 上聲 合口1等 心母의

발음이 수록되어 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각각 tsiue, dziue, sua로 발음된다.

讀若字 ‘小兒’의 瑣는 《廣韻》에서 正篆 𦉰과 함께 果韻 蘇果切의 上聲 合口1等 心母의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許慎은 正篆 𦉰에 대해 讀若字 瑣를 들어, 漢代 sua음을 표기하고 있다.

(8) 繻(縑)

《說文解字》 13篇上 糸部 縑에 대해서 許慎은 “縑采色也. 从糸需聲. 讀若《易》縑有衣.”라고 하였다. 《易·水火既濟》에 “縑有衣裯, 冬日戒(헤어진 옷을 입고 종일 경계한다)”라고 하였다. 許慎은 正篆 縑에 대해 같은 글자로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易》曰縑有衣裯”의 縑는 《廣韻》에서 虞韻 人朱切의 平聲 合口3等 日母의 발음으로 표기하고, “符帛(비단조각)”의 縑에 대해서 虞韻 相俞切의 平聲 合口3等 心母의 발음으로 표기되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각각 ɲiuo와 siuo로 발음된다. 《集韻》에서는 오히려 “縑采色也”의 의미에 대해서 虞韻 相俞切의 平聲 合口3等 心母의 발음이 표시되어 있다.

縑의 발음이 ɲiuo와 siuo로 나타나는 있는 상황에서 許慎은 《易·水火既濟》의 “縑有衣裯”를 들어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廣韻》과 《集韻》의 의미기록에 의하면, 許慎이 두 가지 발음 중 어떤 발음을 표기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段玉載 注에서는 siuo발음의 相俞切 4部로 기록되어 있다.

(9) 輦(輦)

《說文解字》 14篇上 車部 輦에 대해서 許慎은 “輦車後登也. 从車丞聲. 讀若《易》拯馬之拯.”이라고 하였다. 《易·風水渙》에 “初六, 用拯, 馬壯,

吉.(오옥은 구원함에 말이 긴장하니 길하다)”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 서는 拯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許慎은 正篆 輦에 대해 拯을 讀若字로 삼았다.

“輶車後登也”의 正篆 輦은 《廣韻》에 蒸韻 署陵切的 平聲 開口3等 禪母와 拯韻에 “音蒸上聲”의 上聲 開口3等 照母의 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王力的 漢代 擬音を 참고하면, 각각  $ziəŋ$ ,  $ʈiəŋ$ 로 발음된다.

讀若字 拯의 발음 중 正篆 輦와 同音으로 나타나는 것은 《廣韻》 拯韻 “音蒸上聲”의 上聲 開口3等 照母 발음이다.

許慎은 正篆 輦에 대해서 讀若字 拯을 들어, 漢代  $ʈiəŋ$  음을 표기하고 있다.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易》편장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重天乾〉	夕惕若厲	惕	惕	t'iek
〈水雷屯〉	卦屯	輶	屯	tiuən
		楡		
〈澤天夬〉	勿卹	瞍	卹(xiuet)	siuet
〈澤地萃〉	萃卦	悴	萃	dziuəi
〈火山旅〉	旅瑣瑣	唼	瑣	sua
〈風水渙〉	拯馬	輦	拯	$ʈiəŋ$
〈水火既濟〉	繻有衣	繻		$ŋiue$ siue
〈繫辭下傳〉	慮羲氏	彘	羲(xie)	xiei

〈重天乾〉 1句·〈水雷屯〉 2句·〈澤天夬〉 1句·〈澤地萃〉 1句·〈火山旅〉 1句·〈風水渙〉 1句·〈水火既濟〉 1句·〈繫辭下傳〉 1句의 총 9개 구문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同音字로 표기되어 있으나, 心母字 瞍의 음을 曉母字 卹로 표기하고, 至韻 彘의 음을 支韻 羲로 표기하고 있

다는 점에서 유사음이 표기수단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輓(輓)은 인용문을 통한 表音자료 중 유일하게 ‘讀與’의 서술어를 사용하여 表音하고 있다. ‘讀與’와 ‘讀若’의 활용내용에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3. 《春秋左傳》·《春秋公羊傳》 引用 10句

《春秋左傳》의 구문을 인용한 表音자료에는 〈隱公〉·〈桓公〉·〈僖公〉·〈襄公〉·〈昭公〉의 구문이 인용되었고, 《春秋公羊傳》은 〈宣公〉의 구문이 인용되었다. 대부분 人名과 地名이 인용되었다.

#### (1) 𨔵(𨔵)

《說文解字》 2篇上 走部 𨔵에 대해서 許慎은 “動也. 从走樂聲. 讀若《春秋傳》曰輔𨔵.”라고 하였다. 《春秋左傳·襄公二十四年》의 “晉侯使張骼、輔𨔵致楚師, 求御于鄭.(晉侯가 張骼과 輔𨔵으로 하여금 초나라 군사에게 싸움을 걸게 하였다)”를 인용하였다. 현존 판본에서는 𨔵을 ‘躒’로 쓰고, 段玉載 注에도 “今傳作躒.”<sup>32)</sup>이라 하였다. 《集韻》 錫韻에는 狼狄切의 음으로 𨔵과 躒을 異體字로 수록하고 있다. 許慎은 正篆 𨔵의 발음을 ‘輔𨔵’의 𨔵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𨔵은 《廣韻》에서 錫韻 郎擊切의 入聲 開口4等 來母字로 표기되어 있고, 《集韻》 錫韻 狼狄切에는 𨔵과 躒이 異體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의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liek으로 발음된다. 《廣韻》에는 𨔵의 다른 발음 鐸韻 盧各切의 入聲 開口1等 來母도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漢代 lak로 擬音된다.

𨔵躒의 異體字 관계를 고려할 때, 許慎은 正篆 𨔵의 발음에 대해서 《春秋左傳·襄公二十四年》의 “晉侯使張骼、輔躒致楚師, 求御于鄭.”을 인용하여, liek 발음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67쪽.

## (2) 𨇗(𨇗)

《說文解字》 2篇下 𨇗部 𨇗에 대해서 許慎은 “乍行乍止也。从彳止。凡 𨇗之屬皆从𨇗。讀若《春秋傳》曰𨇗階而走。”라고 하였다. 《春秋公羊傳·宣公六年》 “趙盾知之, 𨇗階而走(趙盾이 눈치를 채고, 계단을 뛰어 넘어서 내달렸다).”를 인용하였다. 현존 판본에서는 𨇗를 踏로 쓰고, 段玉載 注에도 “今公羊作踏.”<sup>33)</sup>이라고 하였다. 《集韻》 藥韻 𨇗略切에는 𨇗와 踏가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𨇗과 踏이 가차관계임을 알 수 있다. 許慎은 正篆 𨇗의 발음을 ‘𨇗階而走’의 𨇗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𨇗와 異體字 踏는 《集韻》에서 藥韻 𨇗略切(段玉載와 같은 音值)의 入聲 開口3等 徹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tɿɔk으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𨇗의 발음에 대해서 《春秋公羊傳·宣公六年》 “趙盾知之, 𨇗階而走.”를 인용하여, tɿɔk 발음을 표기하였다.

## (3) 𦍋(𦍋)

《說文解字》 4篇上 羊部 𦍋에 대해서 許慎은 “羊未卒歲也。从羊兆聲。或曰羴羊百斤左右爲𦍋。讀若《春秋》盟于洮。”라고 하였다. 《春秋左傳·僖公八年》의 “盟于洮.(洮에서 만나 맹약했다)”를 인용하여, 正篆 𦍋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洮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𦍋와 讀若字 洮는 모두 《集韻》에서 小韻 直紹切의 上聲 開口3等 澄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漢代音에 dio로 擬音할 수 있다.

許慎은 正篆 𦍋에 대해서 같은 聲符의 讀若字 洮를 들어, 漢代의 dio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 (4) 筩(筩)

《說文解字》 5篇上 竹部 筩에 대해서 許慎은 “筩也。从竹孚聲, 讀若

33)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70쪽.

《春秋》魯公子彊.”라고 하였다. 《春秋左傳·隱公五年》의 “冬十有二月辛巳, 公子彊卒.(겨울 12월 辛巳일에 공자 彊가 죽었다)”을 인용하였고, 正篆 ‘箏’의 발음을 ‘彊’로 표기하고 있다. 許慎은 ‘彊’에 대해서 《說文解字》에서 “弓弩耑, 弦所戾也. 从弓區聲.”이라 하였다.

正篆 箏는 《廣韻》에서 虞韻 芳無切의 平聲 合口3等 敷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箏는 漢代에 p'iuo로 발음된다.

讀若字 彊는 《廣韻》에서 侯韻 恪侯切의 平聲 開口1等 溪母字로 수록된다. 彊의 漢代 발음은 k'ui이다.

위의 분석에 의하면, 正篆 箏와 讀若字 彊는 동음이 아니다. 《說文解字》大徐本<sup>34)</sup>에는 箏에 대해서 “箏也. 从竹孚聲, 讀若《春秋》魯公子彊. 又芳無切.”이라고 하여, 箏의 발음을 두 가지로 기록하였다. 《說文解字句讀》에서는 “十虞不收彊, 十九侯不收箏, 或《唐韻》兼收也.”라고 하였다. 실제로, 箏(漢代 p'iuo)가 수록된 《廣韻》과 《集韻》十虞에서는 彊의 聲符 區를 수록한다. 《廣韻》區는 虞韻 豈俱切의 平聲 合口3等 溪母字로 수록되어 있고, 漢代 발음은 k'iuo이다. 그러므로 彊의 발음 중 k'iuo나 유사음의 발음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箏와 彊의 聲母 모두 次淸音으로 역대 한어발음에서 互變현상이 쉽게 나타났다.<sup>35)</sup> 그러므로 許慎은 유사음을 가진 彊로서 正篆 箏의 漢代 p'iuo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 (5) 𧰨(𧰨)

《說文解字》 6篇下 員部 𧰨에 대해서 許慎은 “物數紛𧰨亂也. 从員云聲. 讀若《春秋傳》曰宋皇郞.”이라고 하였다. 《春秋左傳·襄公九年》의 “季武子, 齊崔杼, 宋皇郞從荀罃, 士匄門于鄆門(季武子和 齊나라 崔杼, 宋

34) 《說文解字》 孫刻本.

35) 黃季剛의 “同位相變”에 의하면 溪母와 敷母는 同位관계이다. 陳新雄, 앞의 책, 672쪽.

나라 皇郞은 鄆門에서 荀罄과 士勾를 따랐고)를 인용하였고, 正篆 ‘𧇗’의 발음을 ‘皇郞’의 郞으로 표기하고 있다. 許慎은 郞에 대해서 “漢南之國, 从 邑員聲.”이라고 하였다.

正篆 “亂也”의 𧇗은 《廣韻》에서 文韻 五分切의 平聲 合口3等 爲母字와 問韻 王問切의 去聲 合口3等 爲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gamma i u a n$ 으로 발음된다.

讀若字 郞은 《廣韻》에서 正篆 𧇗과 동음자인 文韻 五分切의 平聲 合口3等 爲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𧇗에 대해 郞을 讀若字로 삼아, 漢代의  $\gamma i u a n$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 (6) 鬣(鬣)

《說文解字》 9篇上 髟部 鬣에 대해서 許慎은 “髮長也, 从 髟監聲, 讀若《春秋》黑肱以濫來奔.”이라고 하였다. 《春秋左傳·昭公三十一年》의 “黑肱以濫來奔(黑肱이 濫땅으로 도망쳐왔다)”를 인용하였고, 正篆 ‘鬣’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濫’으로 표기하고 있다. 許慎은 濫에 대해서 “汜也, 从水監聲.”이라고 하였다.

正篆 “髮長也”의 鬣은 《廣韻》에서 談韻 魯甘切의 平聲 開口1等 來母字로 표기되어 있고, 《集韻》에서도 談韻 盧甘切의 平聲 開口1等 來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l a m$ 으로 발음된다.

讀若字 濫은 《集韻》에서 ‘邑名, 在邾’의 의미로 談韻 盧甘切의 平聲 開口1等 來母에 수록되어 있다.

許慎이 正篆 鬣에 대해 같은 聲符의 濫을 讀若字로 삼아, 漢代의  $l a m$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 (7) 顴(顴)

《說文解字》 9篇上 頁部 顴에 대해서 許慎은 “頭不正也, 从頁未, 未,

頭傾, 亦聲. 讀又若《春秋》陳夏齧之齧.”라고 하였다. 《春秋左傳·昭公二十三年》에 “獲陳夏齧(陳나라 夏齧을 사로잡았다)”고 하였다. 許慎의 《說文解字》에 齧에 대해서 “噬也. 从齒切聲.”이라 기록하였다. 許慎은 正篆 頰의 又音을 讀若字 齧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頰는 《廣韻》에서 ‘頭不正兒’의 의미로, 賄韻 落猥切의 上聲 合口 1等 來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的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luai로 발음된다. 이 발음 외에 《集韻》에서는 隊韻 盧劉切의 去聲 合口1等 來母字로 수록되어 있다. 역시 漢代에 luai로 발음된다. 正篆 頰에 대해서 이 자료들은 하나의 발음 ‘luai’를 수록하고 있다.

‘讀若字 齧는 《廣韻》에서 屑韻 五結切의 入聲 開口4等 疑母字(漢代 꺄:t)로 표기되어 있다. 《集韻》에서는 이 발음 외에도 ‘噬也’의 의미로 屑韻 詰結切의 入聲 開口4等 見母字(漢代 꺄:t)가 수록되어 있다.

段玉載 注에는 《說文解字》“讀又若《春秋》陳夏齧之齧”의 아래에서 “又有此音, 卽與左倪右倪之倪同也. 曰陳夏齧之齧, 當許時讀《春秋》, 此齧必與他齧不同也(또한 이 발음이 있다. 즉 ‘左倪右倪’의倪와 같다. 陳나라 夏齧의 齧는 許慎 당시 《春秋》를 읽을 때, 다른 발음의 齧와 다른 발음으로 읽었음을 말한다.)”<sup>36)</sup>라고 하였다. 《集韻》 屑韻 倪結切의 入聲 開口4等 疑母(漢代 꺄:t) 발음에 齧과倪가 同音字로 수록되어 있다. 段玉載 注의 분석에 근거하면, 許慎이 ‘陳夏齧’의 齧를 인용하여 표기하고자 한 正篆 頰의 又音은 漢代 꺄:t임을 알 수 있다.

### (8) 靄(靄)

《說文解字》 11篇下 雨部 靄에 대해서 許慎은 “寒也. 从雨執聲. 或曰早霜也. 讀若《春秋傳》墊隘”이라고 하였다. 《春秋左傳·襄公九年》과 《春秋左傳·襄公二十五年》에 각각 “夫婦辛苦墊隘(부부들이 고생 끝에 아주 쇠약해져서)”와 “久將墊隘, 隘乃禽也(오래 있으면 쇠약해지고 쇠약해지면

36)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425쪽.

사로잡히니)”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는 阨이 隘으로 나타난다. 許慎은 ‘塾’에서 “下也. 《春秋傳》曰塾隘. 从土執聲. 이라고 하였고, 段玉載 注에도 “阨隘古通”<sup>37)</sup>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霸’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塾’으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霸는 《廣韻》에서 柀韻 都念切의 去聲 開口4等 端母字와 緝韻 陟入切의 入聲 開口3等 知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を 참고하면, 漢代에 각각 tiam과 tiəp으로 발음된다.

‘下也’의 讀若字 塾은 《廣韻》에서 塾은 正篆 霸와 同音인 柀韻 都念切의 去聲 開口4等 端母字에 수록되어 있다. 漢代 발음은 tiam이다.

許慎이 正篆 霸에 대해 같은 聲符의 塾을 讀若字로 삼아, 漢代 tiam음을 표기하고 있다.

#### (9) 鑿(鑿)

《說文解字》 14篇上 金部 鑿에 대해서 許慎은 “金聲也. 从金輕聲, 讀若《春秋傳》曰鑿而乘它車.”라고 하였다. 《春秋左傳·昭公二十六年》에 “鑿而乘於他車以歸(한 말로 다른 수레에 올라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는 鑿이 鑿으로 나타나고, 它가 他로 나타난다. 段玉載 注에도 “今《左傳》作鑿而乘他車”<sup>38)</sup>라고 하였다. 許慎의 《說文解字》에는 ‘鑿’을 수록하지 않는다. 許慎은 正篆 鑿의 발음을 假借字 鑿으로 표기하고 있다. ‘金聲也’의 正篆 鑿은 《廣韻》에서 淸韻 去盈切의 平聲 開口3等 溪母字와 徑韻 苦定切의 去聲 開口4等 溪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を 참고하면, 漢代에 모두 k'ieŋ으로 발음된다.

讀若字 鑿에 대해서 《廣韻》에서 ‘一足跳行’ 의미로 나타나며, 正篆 鑿과 같은 淸韻 去盈切의 平聲 開口3等 溪母字와 徑韻 苦定切의 去聲 開口4等 溪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37)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580쪽.

38)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717쪽.

許慎은 正篆 𩇛에 대해 同音假借 關係의 𩇛으로서 漢代의 k'ie ŋ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10) 𩇛(𩇛)

《說文解字》 14篇下 西部 𩇛에 대해서 許慎은 “酒味淫也. 从西, 𩇛省聲. 讀若《春秋傳》曰美而𩇛.”이라고 하였다. 《春秋左傳·桓公元年》에 “美而𩇛(아름답고 곱다)”라고 하였다. 《康熙字典》에서는 𩇛에 대해서 “《玉篇》俗𩇛字”라고 하였고, 𩇛에 대해서 “《正字通》同𩇛.”이라고 하였다. 𩇛과 𩇛은 異體字의 關係이다. 許慎은 𩇛에 대해 “好而長也. 从豐, 豐, 大也. 𩇛聲. 《春秋傳》曰美而𩇛.”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𩇛의 발음을 讀若字 𩇛으로 표기하고 있다.

‘酒味淫也’의 正篆 𩇛는 《廣韻》에서 感韻 古禪切的 上聲 開口1等 見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漢代 kəm으로 擬音된다. 《集韻》에는 이 발음 외에도 같은 의미의 𩇛가 勘韻 徒紺切的 去聲 開口1等 定母(漢代 dəm)의 발음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勘韻 古暗切的 去聲 開口1等 見母(漢代 kəm)의 발음도 수록되어 있다.

讀若字 𩇛은 《廣韻》에서 ‘美色也’ 의미로 𩇛韻 以瞻切的 去聲 開口3等 喻母字에 표기되어 있다.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ɬiam으로 발음된다.

曾運乾의 주장에 의하면 喻母字는 중국 古音에 定母字와 같은 발음이었다.<sup>39)</sup> 古音에서 두 글자가 같은 성모와 같은 韻尾의 音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正篆 𩇛(《廣韻》 勘韻 徒紺切, 去聲 開口1等 定母)과 讀若字 𩇛(《廣韻》 𩇛韻 以瞻切, 去聲 開口3等 喻母字)는 許慎의 讀書音에서 유사 음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許慎은 正篆 𩇛에 대해 讀若字 𩇛로서 dəm음을 표기하였다.

39) 陳新雄, 앞의 책, 684쪽.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春秋左傳》·《春秋公羊傳》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春秋左傳·隱公》	魯公子彊	彊	彊	p'iuo
《春秋左傳·桓公》	美而黻	黻	黻	dəm
《春秋左傳·僖公》	盟于洮	洮	洮	dio
《春秋左傳·襄公》	宋皇郕	郕	郕	ɣiuən
	墊阬	羈	墊	tiam
	輔櫜	櫜		liek
《春秋左傳·昭公》	陳夏鬻	頰	鬻	ɲia:t
	黻而乘它車	黻	黻	k'ieŋ
	黑肱以濫來奔	鬻	濫	lam
《春秋公羊傳·宣公》	辵階而走	辵		t'ioŋ

《春秋左傳》의 〈隱公〉 1句·〈桓公〉 1句·〈僖公〉 1句·〈襄公〉 3句·〈昭公〉 3句와 《春秋公羊傳·宣公》 1句의 총 10개 구문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頰(頰)는 ‘讀又若’의 술어를 사용하여 又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櫜와 辵는 同字로 表音を 하고 있다. 正篆을 같은 聲符의 글자로 表音한 자료는 洮-洮, 鬻-濫, 羈-墊이 나타나고 있다.

#### 4. 《論語》·《爾雅》 引用 6句

##### 1) 《論語》 引用 3句

許慎은 《論語》에서 〈泰伯〉·〈先進〉·〈陽貨〉을 인용하여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 (1) 詒(詒)

《說文解字》 3篇上 言部 詒에 대해서 許慎은 “離別也. 从言多聲, 讀若

《論語》跂予之足. 周景王作洛陽詒臺.”이라고 하였다. 《論語·泰伯》의 “啓予足!啓予手!(조심하여라! 신중할진저!)”라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서는 跂가 啓로 나타나고 있다. 《說文解字》에는 跂가 수록되지 않았다. 許慎은 正篆 詒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跂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詒는 《廣韻》에서 ‘離別也’의 의미로 支韻 直離切의 平聲 開口3等 澄母字와 紙韻 尺氏切의 上聲 開口3等 穿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的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각각 漢代에 die와 tie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跂는 《集韻》에서 正篆 詒과 함께 支韻 陳知切의 平聲 開口3等 澄母字로 나타난다.<sup>40)</sup> 漢代에는 die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詒를 讀若字 跂로 표음하여, 漢代 die음을 표기하고 있다.

## (2) 鞮(鞮)

《說文解字》 3篇下 革部 鞮에 대해서 許慎은 “車衡三束也. 曲鞮鞮縛, 直鞮鞮縛. 从革鞮聲, 讀若《論語》鑽燧之鑽.”이라고 하였다. 《論語·陽貨》에 “鑽燧改火((계절마다) 鑽燧로 불을 바꾸어 피우게 마련이니)”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는 鑽의 本義에 대해서 “所以穿也. 从金贊聲.”이라고 하였다.

正篆 鞮는 《廣韻》에서 桓韻 借官切의 平聲 合口1等 精母字로 표기되었다. 이 발음은 漢代에 tsuan으로 擬音할 수 있다.

讀若字 鑽도 《廣韻》에서 正篆 鞮과 함께 桓韻 借官切의 平聲 合口1等 精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許慎은 正篆 鞮를 讀若字 鑽로서 표음하여, 漢代 tsuan음을 표기하고 있다.

40) 跂는 《廣韻》에도 수록되지만, 《廣韻》을 기초로 수정하고 增修한 《集韻》에서는 跂가 正篆 詒와 함께 수록되어 同音관계가 명확히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 《集韻》을 인용한다. 아래도 같다.

## (3) 輶(輶)

《說文解字》 14篇上 車部 輶에 대해서 許慎은 “車輶宏聲也。从車貞聲，讀若《論語》鏗尔，舍琴而作。一曰讀若擊。”라고 하였다. 許慎은 正篆 輶의 두 가지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論語·先進》에 “鏗爾，舍瑟而作(뚝뚝하는 소리를 한번 내더니 슬을 내려놓고는 일어났다)”라고 하였다. 許慎은 《論語》를 인용하여, 正篆 輶의 발음을 鏗으로 표기하고 있다. 許慎 《說文解字》에는 鏗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正篆 輶은 《廣韻》에서 耕韻 口莖切的 平聲 開口2等 溪母字(漢代 k'eŋ)로 표기되어 있다. 《集韻》에서는 山韻 丘閑切的 平聲 開口2等 溪母(漢代 k'eən) 발음을 수록하고 있다.

‘一曰讀若擊’의 擊은 《廣韻》에서 山韻 苦閑切, 平聲 開口2等 溪母字와 先韻 苦堅切的 平聲 開口4等 溪母字에 수록하고 있다. 그 중 苦閑切, 平聲 開口2等 溪母字의 漢代 발음이 k'eən이다. 즉, 正篆 輶의 又音 k'eən 발음을 ‘擊’으로 표시하고 있음이다.

讀若字 鏗은 《廣韻》에서 耕韻 口莖切的 平聲 開口2等 溪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漢代에 k'eŋ으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輶에 대해 讀若字 鏗로 표음하고 있으며, 漢代 k'eŋ음을 표기하고 있다.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論語》편장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泰伯〉	跖子之足	跖	跖	die
〈先進〉	鑽燧	輶	鑽	tsuan
〈陽貨〉	鏗尔, 舍琴而作	輶	鏗	k'eŋ

〈泰伯〉 1句·〈先進〉 1句·〈陽貨〉 1句의 3개 구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同音字로 한자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書》 引用 4句

2) 《爾雅》 引用 3句

《爾雅》의 구문을 인용한 表音자료에는 〈釋山〉과 〈釋獸〉의 구문이 인용되었다.

(1) 𣎵(𣎵)

《說文解字》 6篇上 木部 𣎵에 대해서 許慎은 “斷也. 从木出聲, 讀若《爾雅》𣎵無前足之𣎵.”이라고 하였다. 《爾雅·釋獸》에 “𣎵, 無前足.(𣎵은 앞발이 없다)”라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𣎵에 대해서 “𣎵, 獸, 無前足. 从彡出聲.”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𣎵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𣎵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𣎵은 《廣韻》에서 沒韻 當沒切의 入聲 合口1等 端母字와 末韻 藏活切의 入聲 合口1等 從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的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각각 漢代에 tuat와 dzuat로 발음된다. 《集韻》에서는 그 외에도 “斷也”의 𣎵에 대해 質韻 女律切의 入聲 開口3等 娘母字로 표기되고, 點韻 女滑切의 入聲 開口2等 娘母字로 표기된다. 이 발음은 漢代에 각각 niet과 net로 발음된다.

“獸名”의 讀若字 𣎵에 대해서 《廣韻》에서 點韻 女滑切의 入聲 開口2等 娘母字로 표기된다. 《集韻》에서는 그 외에도 “獸”의 𣎵와 “斷也”의 𣎵에 대해 質韻 女律切의 入聲 開口3等 娘母字로 표기된다. 이 발음은 漢代에 각각 net과 niet으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𣎵에 대해 讀若字 𣎵을 들어, 漢代 net이나 niet음을 표기하고 있다.

(2) 𣎵(𣎵)

《說文解字》 8篇下 欠部 𣎵에 대해서 許慎은 “𣎵鼻也. 从欠咎聲, 讀若《爾雅》曰麋羶短脰.”이라고 하였다. 《爾雅·釋獸》에 “麋、麋, 短脰.(麋와 麋는 목이 짧다)”고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麋에 대해서 “麋牝者. 从鹿

咎聲.”이라 하였다. 許慎은 正篆 欲의 발음을 같은 聲符의 響로 표기하고 있다.

正篆 欲은 《集韻》에서 黝韻 於糾切의 上聲 合口3等 影母字(漢代 ○iu)로 표기되고, 그 외에도 小韻 巨夭切의 上聲 開口3等 群母字와 小韻 被表切의 上聲 開口3等 並母字로도 나타난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각각 漢代에 gio와 bio로 발음된다.

讀若字 響는 《廣韻》에서 “牝響”의 의미로 有韻 其久切의 上聲 合口3等 群母(漢代 giu) 발음으로 나타나지만, 《集韻》에서는 小韻 巨夭切의 上聲 開口3等 群母字와 小韻 被表切의 上聲 開口3等 並母字로도 나타난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각각 漢代에 gio와 bio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欲에 대해 讀若字 響를 들어, 漢代 gio나 bio음을 표기하고 있다.

### (3) 駮(駮)

《說文解字》 10篇上 馬部 駮에 대해서 許慎은 “馬行相及也. 从馬及, 及亦聲, 讀若《爾雅》曰小山駮.”이라 하여 同字로 表音하고 있다. 《爾雅·釋山》에 “小山岌大山, 岌(작은 산이 삐죽 솟아 큰 산보다 더 높은 것이 岌이다)”고 하였다. 현존 판본에서는 駮을 岌으로 쓰고 있다. 段玉載 注에도 “今《爾雅》作小山岌, 許所據古本也.”<sup>41)</sup>라고 하였다. 駮과 岌이 假借관계임을 알 수 있다.

正篆 駮은 《廣韻》에서 合韻 蘇合切의 入聲 開口1等 心母字로 표기되어 있고, 《集韻》에서도 “馬行相及”의 駮에 대해서 合韻 悉合切의 入聲 開口1等 心母字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발음은 王力の 西漢에서 東漢시기 擬音을 참고하면, 漢代에 sɛp으로 발음된다.

許慎은 正篆 駮의 발음을 同字를 활용해서 漢代의 sɛp음을 표기했음을

41) 許慎 撰, 段玉載 注, 앞의 책, 470쪽.

알 수 있다.

위의 분석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爾雅》편장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釋山〉	小山駮	駮		səp
〈釋獸〉	豸無前足	𧈧	豸	net niet
	麤猥短脰	欲	麤	gio bio

《爾雅》을 인용한 表音자료에는 〈釋山〉 1句·〈釋獸〉 2句의 3개 구문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駮는 同字로 表音を 하고 있다. 또한, 正篆을 같은 聲符의 글자로 表音한 자료는 𧈧-豸, 欲-麤이다.

#### IV. 결론

許慎의 《說文解字》 表音기록 중 49개 正篆은 經典句를 인용하여 구문 중의 漢字를 讀若字로 삼고 있다. 《論語》 3句, 《詩》 20句, 《書》의 〈虞書〉 1句·〈夏書〉 2句·〈商書〉1句, 《易》 9句, 《春秋左傳》 9句, 《春秋公羊傳》 1句, 《爾雅》 3句가 인용되었다. 이 자료의 기본적인 표음술어는 ‘讀若’·‘讀與’·‘讀又若’이다.

본고 분석에 따르면, 許慎이 表音의 도구로 활용한 讀若字의 유형과 표기 발음은 다음과 같다.

##### 1. 同音異字

許慎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同音字가 사용된 經典句를 인용하여 同音

異字로서 正篆 20개를 表音하였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正篆의 정확한 발음표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아래와 같다.

經典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論語·先進》	鑽燧	鑿	鑽	tsuan
《論語·陽貨》	鏗尔, 舍琴而作	軫	鏗	k'ej
《詩經·大雅·生民》	威儀秩秩	越	秩	diet
《詩經·衛風·碩人》	施罟濊濊	賅	濊	xuat
《詩經·魯頌·泮水》	穰彼淮夷	嬰	穰	koaj
《詩經·召南·標有梅》	標有梅	爰	標	bio
《詩經·小雅·鹿鳴》	莘莘征夫	粦	莘	ʃeən
《詩經·魏風·葛屨》	糾糾葛屨	媿	糾	kio
《詩經·魏風·葛屨》	攢攢女手	戔	攢	tsiam
《詩經·邶風·狼跋》	赤舄几几	喬	几	kiei
《書經·商書·說命》	藥不瞑眩	宥	瞑	mian
《書經·虞書·舜典》	竄三苗	窳	竄	ts'ua:t
《書經·夏書·甘誓》	天用剿絕	濯	剿	tsio
《周易·水雷屯》	卦屯	楡	屯	tiuən
《周易·水雷屯》	卦屯	幅	屯	tiuən
《周易·火山旅》	旅瑣瑣	恣	瑣	sua
《春秋左傳·隱公》	魯公子彊	孳	彊	p'iuo
《春秋左傳·襄公》	宋皇郟	貶	郟	ɣiuən
《春秋左傳·桓公》	美而黻	鬻	黻	dəm
《春秋左傳·昭公》	陳夏齧	頰	齧	tjia:t

## 2. 同音同字

許慎은 經典句에 사용된 同字로 正篆 7개의 발음을 표기하였다. 이 자료들은 句를 인용하여, 多音字의 발음을 제한하여 발음을 명확하게 표기

하는 효과가 있다. 아래와 같다.

經典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詩經·小雅·桑扈》	解解角弓	解	解	sie ŋ
《詩經·小雅·小旻》	戴戴大猷	戴	戴	diet
《詩經·爾風·狼跋》	赤舄擊擊	擊	擊	k'eən
《周易·水火既濟》	繻有衣	繻	繻	ŋiuo siuo
《春秋左傳·襄公》	輔趨	趨	趨	liek
《春秋公羊傳·宣公》	走階而走	走	走	t'ɔk
《爾雅·釋山》	小山馱	馱	馱	səp

### 3. 同音假借字

許慎은 하나의 經典 구문에서 同音假借관계에 있는 漢字를 선택하여 正篆 1개의 발음을 표기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正篆의 발음표기뿐만 아니라, 正篆의 假借字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다.

經典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春秋左傳·昭公》	豐而乘它車	鑿	豐	k'ieŋ

### 4. 同聲符字

許慎은 같은 聲符이거나 聲符와 관련 있는 漢字가 사용된 經典 구문을 인용하여, 같은 聲符를 가진 漢字로서 正篆 19개의 발음을 표기하였다. 이 자료들은 동일한 聲符의 글자가 같은 발음의 근원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와 같다.

經典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聲符	표기 漢代 語音
《論語·泰伯》	跖予之足	跖	跖	多	die
《詩經·大雅·生民》	瓜瓞拳拳	拳	拳	奉	boŋ
《詩經·邶風·泉水》	泌彼泉水	泌	泌	必	piuei
《詩經·王風·中谷有蓷》	啜其泣矣	啜	啜	爨	tiuat
《詩經·周南·樛木》	葛藟縈之	縈	縈	熒	Ōieŋ
《詩經·小雅·桑扈》	受福不讎	讎	讎	難	na
《詩經·小雅·桑扈》	蔦與女蘿	蔦	蔦	鳥	tio
《詩經·衛風·碩人》	施罟濊濊	濊	濊	歲	xuat
《詩經·鄘風·蟋蟀》	蟋蟀在東	帶	帶	帶	tie
《書經·夏書·禹貢》	玼珠	玼	玼	比	bian
《周易·重天乾》	夕惕若厲	惕	惕	易	t'iek
《周易·澤地萃》	萃卦	萃	萃	卒	dziuəi
《周易·風水渙》	拯馬	夬	拯	丞	t'ieŋ
《春秋左傳·僖公》	盟于洮	洮	洮	兆	dio
《春秋左傳·昭公》	黑肱以濫來奔	濫	濫	監	lam
《春秋左傳·襄公》	墊阬	霸	墊	執	tiam
《爾雅·釋獸》	狃無前足	狃	狃	出	net niet
《爾雅·釋獸》	麇毚短脰	欲	麇	咎	gio bio

그 외, 玼(玼)은 《詩經·大雅·生民之什》 “瓜瓞拳拳”의 ‘拳’을 讀若字로 삼고 있다. 許慎의 분석에 의하면, 正篆 玼의 聲符는 丰이고, 讀若字 拳의 聲符는 奉이다. 그러나 拳의 聲符인 奉의 聲符가 丰이다.

## 5. 近音字

許慎은 漢代에 유사한 발음을 가진 讀若字를 선택하여 正篆 2개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다. 아래와 같다.

經典	인용구문	正篆	讀若字	표기 漢代 語音
《周易·澤天夫》	勿郵	陷	郵(xiuət)	siuət
《周易·繫辭下傳》	慮義氏	巽	羲(xie)	xiei

許慎은 正篆 陷에 대해 讀若字 郵로서 漢代 siuət음을 표기하고 있다. 正篆 陷(𡇗: 漢代 xiuət)와 讀若字 恤(郵: 漢代 siuət)는 漢代의 어음에서 韻母가 완전히 같고, 聲母 x와 s는 모두 次淸音의 同位관계로서 발음이 매우 유사하다. 同位關係의 발음은 옛 중국인들이 互變되기 쉬웠다.

許慎은 正篆 巽에 대해 讀若字 羲으로서 漢代 xiei음을 표기하고 있다. 正篆 巽(xie)와 讀若字 羲(漢代 xiei)는 漢代의 어음에서 聲母가 완전히 같고, 韻母는 隋唐시대에 이르면 ‘i’음으로 완전히 합병된다.

許慎은 正篆 陷와 巽에 대해 유사음을 가진 한자를 讀若字로 삼아 발음을 표기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正篆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經典句를 인용함으로써 漢字의 발음을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許慎의 表音자료에 나타난 正篆과 讀若字의 발음관계를 근거하면, 《說文解字》 ‘讀若’의 기본 기능이 수록 漢字의 발음 표기에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 < 참고문헌 >

- 南基顯 解譯, 《춘추공양전》, 자유문고, 2005.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1993.  
 成百曉 譯註, 《書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1998.  
 楊伯峻 譯註, 李章佑, 朴鍾淵 韓譯, 《論語譯註》, 중문출판사, 1997.  
 이충구·임재완·김병헌·성당제, 《이아주소(爾雅注疏)》, 소명출판, 2004.

- 정병석, 《周易》, (주)을유문화사, 2010.
- 좌구명 지음, 장세후 옮김, 《春秋左傳》, (주)을유문화사, 2012.
- 陳新雄, 《古音學發微》, 文史哲, 1996.
- 丁度, 《集韻》初版, 臺北學海出版社, 1986.
- 頓嵩元, 〈許慎生平事迹考辨(1)〉, 《漯河職業技術學院學報》(綜合版) 第2卷 第3期, 2003.9.
- 頓嵩元, 〈許慎生平事迹考辨(2)〉, 《漯河職業技術學院學報》(綜合版) 第3卷 第2期, 2004.6.
- 蔣澤楓、王英, 〈許慎《五經異義》的經學貢獻〉, 《通化師範學院學報》 第29卷 第7期, 2008.7.
- 宋富凱, 〈《說文解字》中聲讀同字現象解析〉, 《文學教育》, 2015.
- 楊劍橋, 〈《說文解字》的“讀若”〉, 《辭書研究》, 1983.
-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王力, 《漢語史稿》, 新一版, 北京中華書局, 2003.
- 許慎 撰, 段玉載 注, 《新添古音說文解字注》, 臺北市: 弘葉文化事業有限公司, 1999.
- 張玉書 等編, 《康熙字典》, 上海書店出版社, 2014.
- 趙懋之, 《等韻源流》, 台北文史哲出版社, 1985.
- 竺家寧, 《聲韻學》, 五南圖書出版有限公司, 1999.

### < Abstract >

ZhengZhuan(正篆) included in the ShuowenJiezi(說文解字) is written in Sound, and 49 of ZhengZhuan(正篆) quote the phrase of Confucian scriptures. In addition, Chinese Characters in the phrase use DuRuozi(讀若字). There are DuRuo(讀若), DuYu(讀與) and DuYouRuo(讀又若) in the phonetic language of these materials. The 經典 phrases quote 3

phrases in LunYu(論語), 20 phrases in ShiJing(詩經), 4 phrase in ShuJing(書經), 9 phrases in Yi(易), 9 phrases in ChunQiuZuoZhuan(春秋左傳), 1 phrase in ChunQiuGongYangZhuan(春秋公羊傳), 3 phrases in ErYa(爾雅). Quoting the Confucian scriptures phrase has the effects of limiting the sound of the DuoYinZi(多音字) and making the meaning more clearly. This emphasis great value of the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XuShen(許慎), who is one of the outstanding literary arts scholars at the time.

In the DuRuoZi(讀若字) of the quoted construction, there are 20 Chinese characters with the same pronunciation and different shapes, 7 Chinese characters with the same pronunciation and the same shape, 1 JiaJieZi(假借字) with the same pronunciation, 19 Chinese characters of the same ShengFu(聲符), and 2 Chinese characters with similar pronunciation.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XuShen(許慎) attempted to express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as clearly as possible by quoting the phrase of Confucian scriptures in the pronunciation of ShuowenJiezi(說文解字). Also, through the pronunciation relationship between ZhengZhuan(正篆) and DuRuozi(讀若字),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basic function of ShuowenJiezi(說文解字) 'DuRuo(讀若)' is in the pronunciation notation.

Key Words : 許慎(XuShen), 《說文解字》(ShuowenJiezi), 正篆(Zheng Zhuan), 讀若字(DuRuozi), 漢代 讀音(Chinese pronunciation of Han Dynasty)

